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6호 [하루 제24679호] 주제 103(2014)년 9월 23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지!

사설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기상을 높이 떨치자

선군조선의 수백만 청년들이 원대한 포부와 비상한 각오, 드높은 열정을 안고 영웅적투쟁에 총력기해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청년동맹모범초급일대회 참가자들에게 격려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셨다. 지금 온 나라의 청년들은 서한의 구절구절을 피땀 삼켜 새겨가면서 혁명고구려의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선군청년운동이 나아갈 승리의 진군로를 밝혀주시던 위대한 선군청년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로고있으며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부, 장군복을 더욱 가슴깊이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에는 청년들을 앞세우고 청년대군의 무한대량 힘을 발휘시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오라는 우리 당의 드립없는 의지가 격렬히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최상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가슴깊이 새기고 받들고 힘과 지혜, 열정을 다 바쳐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려는 전위투사, 청년영웅이 되려는것이 우리의 모든 청년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새시대의 역사적진군에서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인 청년들이 앞장에 설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사적 서한은 위대한 선군청년들에게서 펼쳐

주신 탁월한 청년정치정치를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려는 철석같은 신념의 선언이다.

청년 중시 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령도의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전략적로선이며 특출한 령도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강점기 혁명활동의 첫 시기에 주체적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령한 전위대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사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청년중시의 정치를 펼치시여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들의 대우를 마련해 놓으신것은 조국청사에 불멸할 업적이다. 조국의 해방과 새 조국건설, 승리의 7.27과 천리마조선의 기적, 사회주의대건설과 치렬한 사회주의수호전으로 이어진 우리 혁명의 년대마다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청년중시, 미패사망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이 찬연히 빛나고있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은 세기가 바뀌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그 진리성과 생명력이 더욱 뚜렷이 과시되는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한에서 우리 당은 청년중시사상을 당사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있으며 청년중시는 우리 당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여기에는 청년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문화도덕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킨 혁명위업만이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강성변영을 실현할수 있다는 령사의 철리가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청년중시사상과 정치가 데를 이어 굳건히 계승되고 심화발전되고있기에 우리 당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사적 서한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경지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대강이다.

오늘의 시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총동원전을 벌리고있는 벅찬 투쟁의 시대, 주체혁명의 새시대이다. 현실은 선군혁명의 계승자라고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이 충실한 청년들의 대우를 마련해 놓으신것은 조국청사에 불멸할 업적이다. 조국의 해방과 새 조국건설, 승리의 7.27과 천리마조선의 기적, 사회주의대건설과 치렬한 사회주의수호전으로 이어진 우리 혁명의 년대마다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청년중시, 미패사망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이 찬연히 빛나고있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은 세기가 바뀌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그 진리성과 생명력이 더욱 뚜렷이 과시되는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한에서 우리 당은 청년중시사상을 당사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있으며 청년중시는 우리 당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여기에는 청년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문화도덕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킨 혁명위업만이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강성변영을 실현할수 있다는 령사의 철리가 맥박치고있다.

를 일신시키고 청년동맹이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숙부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데서 의의는 계기가 된다. 대를 이어 걸출한 령도자, 위대한 스승을 높이 모시고 선군청년운동의 창시자로서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대강이고 행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사적 서한은 우리의 청년들에 대한 하늘같은 믿음과 뜨거운 동지적사랑의 결정체이다.

오늘 청년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 자신과 믿을끼고 어깨를 결고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혁명을 같이할 젊은 주력부대, 끝끝한 청년대가 있기에 마음은 든든하고 하시는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며 새로운 주체 100년의 날과 달들을 청년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수놓아가시는분도 우리 원수님이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어렵고 긴박한 과업을 하는 걸사대,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가 될데 대한 문제로부터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리론을 단고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 강령적지침이다. 현시기 청년운동발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이고 명백한 해답을 주는것으로 하여 서한은 지금 날이 갈수록 청년들과 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이 발표된것은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포모

자애로운 어버이의 응시깊은 사랑이 깃들여있다.

우리 청년들은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줄 아는 순결한 망심과 의리의 인간들이며 언제나 당을 따라 끝바로, 힘차게 내달리는 강하고 용감한 전위대이다.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 이것이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동원전에서 우리 청년들이 들고나가는 당 전투적구호이다. 모든 청년들은 당과 조국, 시대와 혁명의 엄숙한 부름을 깊이 자각하고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세기적전혁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는 청년영웅이 되어야 한다.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에 제시된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혁명성과 과학성, 심오성과 통속성으로 일관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사적서한은 선군청년운동의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미이며 우리 시대이 나날 때마다 청년들에게 맡겨주고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갈도록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령도는 청년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한에서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당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역사적진군에서 청년전위대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가라라는것을 확신하시였다. 여기에는 청년들을 자신의 제일전우로 여기는 위대한 령도자의 숭고한 동지정판이 어려있으며 청년들이 귀중한 청춘시절에 애국헌신의 값있는 삶을 빛내여나가도록 하시려는

전체 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전위투사가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오늘의 시대는 선군조선의 새로운 변혁기가 펼쳐지고 우리 청년들의 모든 꿈과 리상이 꽃피는 보람찬 시대이다.

모든 청년들은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역적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아가야 한다. 그 어떤 천지공파속에서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며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데서 맹수되고 육란이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드는 길이란 물과 불 속에서도 서슴없이 뛰여 들고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열백 번을 때려라도 무조건 해내는 고결한 충정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짙게 차려져야 한다.

청년들은 당앞에 다진 맹세를 높은 사업실적으로 지켜나가는 실천가형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은 선군로동당의 붉은 당기를 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선봉대의 투쟁에서 청년전위대의 영예를 빛내어줄것을 당은 엄숙히 맹세하였다.

전체 청년들은 사회주의조국수호도 강성국가건설도 다 맡아 해끼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오늘 총동원전에 떨쳐나서야 한다. 누구나 총을 잡고 조국보위의 제일선에 서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생각하여 하며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 돌도 없는 청춘을 바쳐 미제침

략자들을 격멸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처럼 조국앞에 지닌 입부름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에 용감 달려나가 전적의 돌파구를 열어끼고 선군속도창조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인민군인민들의 창조적사업과 투쟁기풍이 모든 청년들의 실천투쟁에 적극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 조국을 세계를 앞서나가는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는데서 용감 무쌍한 선구자가 되고 훌륭한 인재를 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간대, 청년들의 정치생활적기풍이 청년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정책관철을 조속히 실현하는 기본전투단위인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초급단체들을 쇄소리나는 전투대로 꾸려 모든 사업을 청년맛이 나게, 재미 있고 열정이 끓어번치게 참신하고 대담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모든 청년들이 당의 의지를 무한히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이여!

모두나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간직하여들의 령도따라 백두산절세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더욱 역세게 싸워나가지.

모든 전선에서 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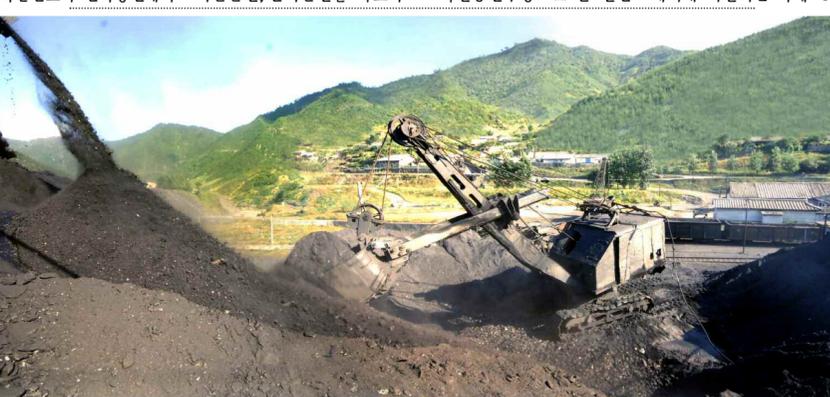
10일 동안에 수천t의 석탄을 증산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에서

앞세워 예비채탄장을 넉넉히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당면한 석탄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연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채탄중대들에 설비와 자재,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신속하게 짜고들면서 노력조치를 합리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막장설비들의 만가등을 보장하고 만부하를 거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석탄증산투쟁으로 온 탄전



당의 전투적조소를 높이 받들고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조양탄광에서 -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강병이가을철이로 들끓는 협동벌

남포시의 농장들이 가을걷이 전투의 알맞은 했다. 시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가을걷이를 최격으로 질적으로 끝내는것이 낱알허실을 없애기 위한 기본방도라는것을 명심하고 분발해나갔다. 농사결속을 잘하여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할 애국의 마음안고 떨쳐나선 외우도구역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보름 남짓한 기간에 가을걷이를 100%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뒤를 바짝 따라선 강서구역의 농장들에서는 가을걷이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으며 온천군에서는 90%계선을 넘어섰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가을하는즉 강병이를 탈곡장에 실어들여 낱알허실을 막고있다.

평양시의 주변농장들도 가을걷이전투를 벌리고있다. 시에서는 일군들이 선전선동수단을 동원하여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게 하는것과 함께 가을걷이조직사업을 짜고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농장들에서는 가을걷이에서 매일 높은 실적을 내었다. 만경대구역, 사동구역을 비롯한 시주변의 많은 농장들에서는 강병이가을을 이미 끝냈다.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선군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선진선동자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가을걷이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도, 시, 군 일군들은 일장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힘찬 투쟁을 벌려 가을걷이실적을 올려놓고있다. 영주, 봉천, 철산, 전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올해 용접레우들이기공사계획 빛나게 완수

철도 성에서

나라의 철길강도를 높여 줄데는 철도성 해당부에서 종합된 자료에 의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선진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난 9월 중순현재 950km의 철길기간에 용접레우를 늘임으로써 올해 철도성앞에 맡겨진 용접레우를 보강하는 사업을 120%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것은 나라의 철길강도를 높임에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과 우리 당의 의도를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성과이며 나라의 동맥이고 인민경제의 선행판인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한층 강화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도부문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은 철길강도를 높이는것입니다.』

철도성 당조직에서는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이 공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책임일군들부터가 공사가 벌어지는 전투현장에 자주 내려가 이 사업이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기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이라는것을 강조하면서 전투원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성의 일군들은 용접레우들이기공사에서 이미 거둔 성과와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 사업을 우리 나라의 지대특성에 맞는 과학적방법에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렸다. 특히 열차들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면서 짧은 시간내에 와타다 대처하는 공사의 특성에 맞게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두고 필요한 용접레우, 콘크리트침목 등을 제때에 보장해 주기 위한 전투적투쟁을 능동적으로 하였다.

평양철도국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이 용접레우들이기공사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거세총계 전진하였다. 국의 일군들은 철길건설전투장설비, 부속품생산단위들에게 나가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공사에 떨쳐나선 전투원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나라의 철길강도를 높이는 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서로철길용접대 근로자들이 용접레우를 질적으로 생산하여 보장하였으며 평양철도차량부속품공장, 순호콘크리트침목공장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일리마다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켜 철길건설에 필요한 콘크리트침목과 각종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해주었다.

개천철도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부강조국건설을 위

를 비롯한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을 적극 리용하여 강병이가을을 따는즉 실어내고있다.

황해북도에서도 모든 령력을 가을걷이에 집중하여 성과를 올리고있다.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나라밖에서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채워넣는 사람이 참된 애국국민이라는 자각을 안고 강병이를 가을하는즉 탈곡장에 운반하여 낱알이 허실되지 않게 하고있다. 특히 사리원시, 상원군, 승호군, 풍산군의 농장들에서는 낱질별, 포진별계획을 바르게 세우고 사회주의경쟁을 잘 조직하여 매일 많은 면적의 가을걷이를 진행하고있다.

강원도, 함경남도의 농장들에서도 가을한 강병이를 보관할수 있는 창자들을 잘 보수해 놓고 가을걷이전투를 전격적으로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년안고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함흥모방직공장에서 - 본사기자 찍음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년안고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함흥모방직공장에서 - 본사기자 찍음

정론

백두산의 후손답게 창조하라

평양을 지나 남포를 거의 가까이할 무렵이면 길옆에 세워진 <천지운활유공장>이라는 표식판을 보게 된다. 이전에는 쓰쳐치나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그 표식판앞을 무심히 지나지 않는다. 지난 삼복의 무더위속에 천지운활유공장을 찾아주신 우리 원수님께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며 온 나라가 다 알고 따라배우도록 내세워주신 그때부터 이곳을 찾는 참관자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을 찾고 있다. 그들 모두가 호기심을 안고 왔던 마음들에 후덕게 새기고 가는것은 무엇인가.

<천지>라는 글자높은 이름과 더불어 솟구쳐오른 우리의 자랑스러운 운활유공장은 강렬한 충격과 취이 지워지지 않는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1

발걸음보다 먼저 마음이 들리는 공장이다. <천지>, 소중한 그 부름을 보란듯이 빛나는 공장으로서 온 나라의 마음 더 뜨겁게 달랠어는것인가. 우리는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삼복철 강령근거우려 력히 어떤 천지운활유공장의 구내길을 걷고있다.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새롭게 격동적이다. 이 땅에 발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며 철단을 향해 노도쳐나아가는 창조적 배양과 기계가 첫걸음부터 세계에 가슴에 미쳐오는 우리 운활유공장의 새 모습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과학의 정신입니다.> 상상했던것보다 더 멋진 전경이 현출 눈앞에 다가온다. 이 공장 어디서나 들게 되는 말이 있다. 일꾼도, 평범한 기대공도 한결같이 안고 사는 기운이 있다. <세계적수준에 비해 배...> 화확공장이라는 개념을 말끔히 잊게 하고 식료공장에 들어선것 같은감을 주는 깨끗하고 명명한 생산장식, 생활장식을 자랑할 때에도 이들은 이 기준을 지키는 공장을 세우고 말한다. <세계적수준에서 보기...>, 10여명이 해야 할 일을 불과 서너명이 충분히 감당하고있는 컴퓨터, 수차, 로봇화면 생산현장에서, 통합생산체가 실현된 공정을 컴퓨터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조종하는 종합조종실에서 가슴이 먹먹하도록 되는 이 말이다. 훌륭하게 조성된 공장의 수평화, 원형화에 대한 표상도 이들은 종업원 한사람마다 지면이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보다 수십배나 더 많은 이으로 정립한다. 세계의 앞선 수준을 따라가면 해서는 성취 안하는 이들이다. 세계를 더디고 올라보란듯이 앞서나가려는 담력과 배심도 간단치 않다. 그리스생산현장에 가보아도 흥분과 찬란의 현수이다. 색깔은 용기에 정향으로 포장되는 그리스들의 통속적인 비유가 우리 얼굴에도 웃음을 피우어준다. 그리스라고 하면 역한 냄새를 풍기고 거무스름한것으로 여기면 안될까 되었다. 물론 향기까지 투여될것은 색깔은 그리스가 기대마다에서 호합하게 쏟아져내린다. 집종은 그리스를 평평 생산하는 이 넓은 현장을

몇명 안되는 기대공들이 관리한다니 자동화의 위력은 얼마나 놀라운것인가. 놀라움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리스생산공정의 자동화는 운활유공이 발전하였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실현 못한 어려운 과제라고 한다. 어느 나라의 기술자들이 괜한 공력을 들인다고 머리를 저었지만 이들은 끝내 해내고야말았다. 운활유를 가리켜 일명 공업의 <피>라고 부른다. 기계의 발명과 함께 시작된 운활유의 역사는 오래다. 저 하늘을 나는 위성으로부터 땅우를 달리는 크고작은 물건기재들은 물론 가정에서 쓰는 선풍기나 제빙기에 이르기까지 운활유가 쓰이지 않는 분야는 없다. 기계의 마찰과 마모를 줄이고 녹막이작용과 함께 환경보호에도 적극 이바지하는 운활유를 잘 쓰는것만으로도 막대한 경제리득을 얻을수 있다고 많은 나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한다. 경제발전의 지향하는 나라들에서 운활유공업을 제2의 기계공업으로 인정하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그런 운활유공업의 세계적인 경쟁마당 한편에 우리의 <천지>가 해상처럼 나타난다. 연유는 마음대로 팔고 사면되는 운활유는 수출을 극력 제한하고 기술이전을 철저히 차단하는 나라들이 놀라운 눈길로 우리의 <천지>운활유를 바라보고있다. 수실중에 270여가지, 좁아보자고만 하여도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그자체가 하나의 자랑이다. 기계의 종류가 헤아릴수 없는만큼 운활유의 종류도 많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체공업에 필요한 운활유를 우리 손으로 만들수 있다니 얼마나 흐트란 일인가. 모든 운활유들이 국제규격에 일치할뿐 아니라 몇개 나라에서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첨단제품도 내놓고있는 자랑 또한 새겨안을 수록 가슴번차다. 우리 운활유공업의 역사는 불과 17년, 그러나 100여년 지어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의 이름난 기업체들과 어깨다들 을 하려는 그 기계와 본래는 조건의 위용을 소리높이 떨친다. 어찌 경제발전에만 나열을 주고 주체공업의 궤도에만 활력을 부여주랴.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를 높이 내건 CNC기계제작공업의 한복판으로부터 트랙터와 모래는기계의 동음높은 사치주의 푸른 전야, 인민생활향상의 승진이 약속하는 정공업공장과 행복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터쳐나오는 유희기구들까지 속속들이 스미며 자기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고 그처럼 훌륭한 우리의것을 더욱 창조할 배심과 열정으로 천만의 심장 불태워 줄 우리의 <천지>운활유이다. 이런것을 두고 남의것을 쳐다보며 무리대고 총계 여기는 수일명<한자>들의 머리 를 깨끗이 씻어주는 세척제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내가 만든 제품을 보라! 천지운활유공장의 로동계급이 생산현장마다 높이 건 이 글발 우리의 눈부러를 파고든다. 그렇다. 조건의 본래, 최첨단과학의 기상과 정신이 벽치게 어려오는 우리의 <천지>운활유이다. 백두의 넘과 기상으로 심장 불태우며 이 땅의 모든것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제부로 만들려는 자력갱생강자들의 창조기공이 <천지>라는 글자높은 그 부름에 실려 천만의 심장을 새치게 두드린다. <천지>, 이 이름은 오늘 비약하는 내 조국의 또

하나의 상징으로, 천만의 가슴마다 무한한 창조적 열정과 힘을 용솟게 하는 애국의 활력소로 빛나고있다. 2 누구나 놀랐다. 천지운활유공장을 찾으신 우리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는 매 주일이 새롭고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운활유생산기라는 귀에 선 부름도 놀라웠다. 불속 초추진 우리의 운활유공업이 첨단으로 내달리는 기상과 면모도 눈부시었다. 그보다 더 놀라웁게 우리 심장을 파고든 우리 마음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삼복철강령근거우려 어떤 공장구내길을 삼가 않는다. 삼복중에서도 제일 무더운 때의 하루였다. 하늘도 땅도 쯤는듯 한 더위속에 달아오른 그날 자연의 열기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의 심장을 파고든것은 무엇이었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단신으로 격으신 교생과 맞바꾸어 후대들에게 물려진 이 공장에 와보니 이처럼 현대화된 훌륭한 공장을 장군님께 한번도 보지못한 여자들이 가슴을 허니다고, 천지운활유공장은 유복자공장이라고 절절히 터치시킨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 심장을 울린다. 이 공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우리 장군님께서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리셨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우리는 세기와 세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던 원수님의 그 말씀 가슴에 새겨주듯 정녕 뜻깊다. 고난의 눈보라결이 우리 장군님 뿌리신 애국의 씨앗! 저 하늘을 나는 우리 위성이 전하는 이야기, CNC기계바다에 깃든 가슴치는 그 추위를 찬탄으로 나아가는 운활유공업의 눈부신 모습에서 또다시 세계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후덕인가.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자리라 위우시킨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희망이 무엇이었는가를 이 나라 인민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사무치게 깨닫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이 스민 땅, 장군님 교생속에 양양겨주신 변영의 레일 이 소리처럼 다가오는 이 땅우 유복자공장-천지운활유공장은 참으로 귀중한 정신을 새겨주고있다. 배리 길도 한걸음으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장군님의 넘넘을 꽃피워온 이 곳 로동계급의 강도 리상과 포부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리상을 높이 세우라! 이것이 천지운활유공장의 눈부신 기적속에 어려오는 우리 시대 선구자들의 삶과 투쟁의 발자취이다. 백두산천지의 맑은 물처럼 터어이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의 운활유를! 그들은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자기들의 리상을 <천지>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새겨냈다. 기적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조국앞에 최약의 시련과 역경이 닥쳐왔

던 고난의 행군, 강령군시기에 야심만만하게, 용감하게 세계적수준을 내다본 이들의 리상과 포부는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 운활유공업을 침탄들과로 눈부시게 돌진하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눈으로 볼수 없는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천지운활유공장을 돌아보면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마음과 마음이 똑똑히 보인다. 우리는 이들의 마음속에 지나가나 불타오른 리상과 포부가 머뭇머뭇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화폭을 마주하고있다. 공장의 분석설이다. 갖가지 분석설비들이 한방 가득 늘어섰다.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것도 있고 고급한 기능을 가진 설비들도 있다. 운활유공장에서 분석설비는 무기라고 할수 있다. 한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중요지표만 하더라도 보통 10여가지나 요구되는것이 운활유공업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쌀보다, 기름보다 귀했던것이 분석설비였다. 막상 구입하지 않으면 자금이 요구되었다. 방도는 무엇인가. 공장의 책임일꾼이 내놓은 의견이 논의의 초점으로 되었다. 애써 마련한 여유자금을 분석설비구입에 우선적으로 돌리자는 일꾼의 제의는 사실 누구나 쉽게 납득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금방 일머리가 시작할 공장을 활성화하고자 하여도, 어려움을 이겨내고있는 종업원들의 생활형편을 개선하는데도 자금은 절실히 요구되었던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그 모든것을 운활유공업의 첨단들과 리상과 포부를 먼저 놓았다. 허리마를 조이고 갖추어준 갖가지 분석설비들이 우리의 눈길을 잡고 높아져나가는 기적과 함께, 목표점령, 리상실현의 번개를 쫓아가지고갈 이들의 잡도리가 어찌했도 길잡이가 얼마나 든든했는가를 이보다 더 명백히 알게 하는 화폭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높은 리상은 계속현실, 계속분발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이룩한 성과에 자만을 모르며 높이, 더 높이 내뻗쳐오는 창조적 열정과 기상은 바로 위대한 리상과 포부가 안겨주는 힘이고 내이다. 이 공장 운활유공업에 들어서면 마치 식료공장에 온것 같은 기분이다. 먼저 한 걸, 소를 하나 없는 깨끗한 생산현장에서 단정하 옷차림을 한 기대공들이 설비들을 관찰한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제품을 담은 큰 용기들이 도장공들이 상표를 새기거나 도색제법새가 되듯 때들고 유속한 도량들을 드러루며 오가는 지게차들의 배기가스 줄이 환경에 깨끗이 무한한 이곳이었다. 질 좋은 운활유공업을 평평 생산해내는것만으로도 만족할수 있었지만 세계 으뜸의 운활유공업을 목표로 하는 공장의 주인들에게 그것은 허용될수 없는 땅이었다. 리상은 더 높은 목표를 가리키고있었다. 그 리상을 실현하여 펼쳐놓은것이 바로 오늘의 빛나는현황이다. 유속한 도량들이 골대흐름선을 타고 제품상까지 흐른다. 로보트가 저 혼자 점분무식으로 상표를 새긴다. 공장을 참관하는 사람들과 무인회차들은 수순에서 실현한 공정을 또 감탄한다. 리상의 힘은 이렇게 강행한다. 천지운활유공장의 로동계급은 리상을 세우는데서도 참단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데서 참단하다. 리상은 실현되어야 한다. 실현되지 못하는 리상은 아무리 눈부시고 아름다와도 쓸모가 없다.

리상을 현실로 앞당기는 힘은 무엇인가. 걸어진 길을 추적할 때면 이들이 궁지높이 터치는 <우리 식>, <우리 힘>이라는 말속에 그 대답이 있다. 운활유공업의 첨단을 향해 달리는 이들의 앞길을 생산공정의 조종프로그램이라는 <큰 산>이 막아선적이 있었다. 그것은 몇몇 일꾼들과 장군님의 리상과 포부를 먼저 놓았다. 허리마를 조이고 갖추어준 갖가지 분석설비들이 우리의 눈길을 잡고 높아져나가는 기적과 함께, 목표점령, 리상실현의 번개를 쫓아가지고갈 이들의 잡도리가 어찌했도 길잡이가 얼마나 든든했는가를 이보다 더 명백히 알게 하는 화폭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높은 리상은 계속현실, 계속분발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이룩한 성과에 자만을 모르며 높이, 더 높이 내뻗쳐오는 창조적 열정과 기상은 바로 위대한 리상과 포부가 안겨주는 힘이고 내이다. 이 공장 운활유공업에 들어서면 마치 식료공장에 온것 같은 기분이다. 먼저 한 걸, 소를 하나 없는 깨끗한 생산현장에서 단정하 옷차림을 한 기대공들이 설비들을 관찰한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제품을 담은 큰 용기들이 도장공들이 상표를 새기거나 도색제법새가 되듯 때들고 유속한 도량들을 드러루며 오가는 지게차들의 배기가스 줄이 환경에 깨끗이 무한한 이곳이었다. 질 좋은 운활유공업을 평평 생산해내는것만으로도 만족할수 있었지만 세계 으뜸의 운활유공업을 목표로 하는 공장의 주인들에게 그것은 허용될수 없는 땅이었다. 리상은 더 높은 목표를 가리키고있었다. 그 리상을 실현하여 펼쳐놓은것이 바로 오늘의 빛나는현황이다. 유속한 도량들이 골대흐름선을 타고 제품상까지 흐른다. 로보트가 저 혼자 점분무식으로 상표를 새긴다. 공장을 참관하는 사람들과 무인회차들은 수순에서 실현한 공정을 또 감탄한다. 리상의 힘은 이렇게 강행한다. 천지운활유공장의 로동계급은 리상을 세우는데서도 참단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데서 참단하다. 리상은 실현되어야 한다. 실현되지 못하는 리상은 아무리 눈부시고 아름다와도 쓸모가 없다.

들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 공장의 자랑이다. 자재의 든든한 두뇌집을 품어들어 꾸민 보람과 궁극이 심장을 울릴 때면 지배인은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를 정책으로 제시하고 결을결을 손잡아 이끌어준 우리 당에 대한 헌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을 적신다. 참관자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통합생산체계도 최첨단들과로 부르는 당정책에 대한 어느 한 해설모임에서 결집을 끌고도 대담하게 생산공정에 받아들일것이라고 지배인은 글자높이 말한다. 일편단심 우리 당파라 이 세상 끝까지! 리상을 향해가는 우리의 길은 억척변의 신념으로 이어가는 길이다. 조국번영의 담보도 그 길에 있고 최첨단들과의 승리로 그 길에 있다. 그 길에 어떤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길인가를 똑똑히 알고있기에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넘넘인 우리 식 운활유공업의 발전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 지어 생애까지도 아낌없이 바친 못 잊을 동지들의 마음까지 함께 <천지>를 빛내이는 그 길을 깨끗이 걸어가고있다. 천만이 우리 당을 한마음한뜻으로 따르며 지혜와 탐과 정열을 다해 당의 구상과 의도를 최상의 경지에서 꽃피울 때, 머나먼 길의 마르지는 간직해온 일편단심을 가야 할 길 천만리에 더욱 굳게 간직할 때 조국도 빛나고 인생도 빛나는 값있는 철리를 천지운활유공장은 비약하는 조국의 푸른 하늘에 우렁찬 메아리로 새기고있다. <천지>, 그 이름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구상에 어떤 리상으로 따라서도 최첨단들과, 과학기술시, 우리 식의 문명창조를 비롯한 모든 당정책을 어떤 실천으로 관철해야 하는가를 시대앞에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고있다. * * * 백두산의 후손답게 백두산을 안고 살라!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지운활유공장을 다녀가신 그날을 계기로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더욱 깊이 새겨안은 승승한 자각이다. 백두산의 후손, 이는 백두산위인이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 이 땅 천만민들의 글자높은 삶에 안겨지는 고귀한 초성이이다. 백두산의 후손은 마땅히 백두산을 닮아야 한다. 리상과 포부도 백두산의 높이로 세워야 하며 창조적 배양과 실현도 백두의 기상 그대로 이루어야 하며 총정교 애국의 마음으로 백두산처럼 청신하고 순결해야 한다. 백두의 공기로 마음을 씻으면 깨끗 미적지근하고 흐릿불한 일본새들이 깨끗이 날아갈것이며 백두의 눈보라를 언젠나 심장에 안고 백두를 불꽃처럼 조건의 넘과 기상이 그대로 맥박치는 시대의 거창한 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눈부시게 안아올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백두산의 후손들이다! 이 자부로 심장의 피를 흘리며 백두산의 후손답게 창조하고 비약하자. 이 영예를 사회주의수호의 전구마에 기발처럼 떨쳐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으로 세계를 놀래우자. 조종의 산, 혁명의 생산 백두산이 자기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자란 이 나라의 아들 딸들을 미더움에 지켜낸다. 땅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이 땅엔 모든 꿈 이루어질 그날을 앞당기며 조국이며, 인민이며, 더 힘차게, 더 용감하게 앞으로!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화환 진정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5돐에 즈음하여 22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그녀의 동상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회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김정숙동지의 동상옆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

내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화환진정에 참가하였다. 에 국가가 주악되고 화환진정 목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화환들의 명기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하리라!>라는 글발이 쓰여져있었다. 인민내무부, 근로단체, 성,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숙동지께 끝없이 총직한 친위전사시며 백두광명성을 안아올리시어 태양인민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놓으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영생을 돌이켜보며 목상하였다. 전제 참가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인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본받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친선만세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 따라 백두산대국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나갈 신념의 맹세를 굳게 가다듬었다.

현란 이날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아 사회주의 조국에 꽃피우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장 66륙경축 세월본조선인민군총사령관과 반제인민군조선전선 평양지구대교가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말리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바마코 말리공화국 대통령 이브라힘 부바까르 케이라카하

나는 말리공화국선로 54쪽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나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3(2014)년 9월 22일 평양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옥련산밀영의 돌밀집 련일 참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옥련산밀영의 돌밀집을 찾은 참관자들의 대오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있다. 돌밀집에 들어가 인민군장병들과 평양시, 합정남도,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을 비롯한 근로자들도 단위의 일꾼들과 대학생들 2만여명이 이곳을 참관하였다. 부전령일대는 울창한 산길 가운데 원시림이 울창하여 항일혁명투쟁을 비밀리에 보장하는 데 대단히 유리하였다. 이 일대에는 일제에 의해 공장, 광산장에 끌려온 로동자들과 살길을 찾아 헤매던 화전민들이 살고있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제26(1937)년 8월에 부전령비밀근거지 옥련산밀영에 있는 돌밀집을 감회깊이 돌아보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숙영하신 뜻깊은 돌밀집을 찾는 참관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귀내깊이에게까지 나오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머니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안고있다. 참관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시신 승교한 모범을 따라배워 위대한 대헌수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타는 열의를 넘쳐있다. [조선중앙통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5돐에 즈음하여 22일 김정숙, 회령시, 김정숙해군대학, 김정숙종합학교에 모신 그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진정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하리라!>라는 글발이 쓰여져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헌수님의 친위전사,

혁명투쟁이 되어서 고귀한 한생을 빛내어주시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창조한 미배를 열어놓으신 백두산 너장군의 빛나는 혁명영생을 돌이켜보며 목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제 참가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시신 승교한 모범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며 이 땅우 자부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용맹진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실현시킬것을 은 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조선중앙통신]

오산덕에 불결쳐흐르는 그리움의 대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어머니처럼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바친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을것입니다.»

오산덕기슭에 절친한 그리움의 대하가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는 요즘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유서깊은 회령혁명사적지를 끊임없이 찾고있다.

종합한 자료에 의하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5돛이 되는 올해에 지금까지 수백개 단위에서 20여만명의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유서깊은 회령혁명사적지를 찾았다.

회령혁명사적지를 찾은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열광마디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충실성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배워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끝까지 완성할 력적의 신념과 불같은 의지가 펼쳐져서 어려웠다.

오산덕에 높이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을 찾은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어머니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탄생하신 회령고향 집을 돌아보았다.

참관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신 회령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이어 그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뜨거운 혁명적투쟁의 산모범을 보여 주신 어머니의 불멸의 혁명생애가 집대성되어있는 회령혁명사적지의 여러곳과 회령혁명사적관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회령혁명사적지의 박물관, 빨래터와 오산덕을 돌아본 참관자들은 어머니께서 품결이 못이었던 정든 고향 회령을 떠나가시면서 어린시절에도 일제놈들이 없는 해방된 그날 그리움고향으로 돌아오리라 굳은 맹세 다지신 망양나무터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해하였다.

회령혁명사적관을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사연깊은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보면서 친대인민이 대를 이어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고귀한 전통을 마스터하고

어머님수령님의 로선과 명명, 지시를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회령혁명사적지관람관을 마친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한결같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이시야말로 수령결사옹위의 영원한 귀감이시며 세인이 경탄하는 걸출한 녀성혁명가이시였다는것을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이들은 경애하는 김정숙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 이 일떠세워 어머니의 숭고한 녀성을 현실로 꽃피울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정성껏 엮은 꽃다발을 안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은 인민군인들은 어머니께선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이 있어 이 땅에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고있다고 격정 어린 이야기하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똑같은 신념으로 한분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수령결사옹위정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설모임을 진행하였다.

언제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숙어머님을 결사옹위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자는 일군의 호소는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로동동맹원 한우 일

의 총대로 굳건히 결사옹위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하루일과를 회령혁명사적지와 그 주변관리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김정숙교원대학교와 김기송회령고급중학교, 회령시 오산덕초급중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더욱 가슴뜨겁게 새겨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려는 선군시대의 참된 교육자, 열렬한 소년혁명가로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열의를 가다듬었다.

초너시절에 평양시에서 회령혁명사적지로 자원진출해온 녀성관리원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깃든 혁명사적지관리에 뜨거운 충정을 바치는것은 자기만이 아닌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혁명사적지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욱 훌륭하게 꾸리는데 자신의 한생을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지금 회령혁명사적지로는 함경북도의 인민들뿐아니라 인민군인들과 평양시와 함강도, 함경남도도 강령도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과 대학, 전문학교, 고급, 초급중학교, 소학교학생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혁명사적

지관리에 자기들의 순결한 마음을 다 바치고있다.

최고검찰소와 청진청도국, 원산수산대학을 비롯하여 회령혁명사적지를 충실성교양의 거점으로 보다 훌륭히 꾸리는데 불타는 충정을 바치고있는 단위들과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세계의 수많은 진보적인민들과 해외동포들도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회령혁명사적지를 찾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는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바쳐 지켜싸우신 어머니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목숨바쳐 결사옹위하는 생애가 되고 방패가 될 결의를 더욱 굳히고있다.

최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숙동지를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천만민민의 불타는 맹세는 오산덕의 하늘에 깔렸어 매이리치고있다.

특파기자 리은 남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5돛에 즈음하여 우표 발행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5돛에 즈음하여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우표(소형전지 1종)를 발행하였다.

우표에 《영원한 천위전사》라는 글씨가 새겨져있는 소형전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신변호위사업을 첫째가는 임무로, 신성령의 무로 여기시고 혁명생애의 전기간 무비의 헌신성과 고결한 충정을 다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안전을 목숨으로 지켜드린 백두산내장군의 거룩하신 모습을 형상한 유희화 《몸소 보초병이 되시여》가 모셔져있다.

【조선중앙통신】

평원권 원화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김정숙동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연구발표모임, 해설모임 등을 진행하여 학습의 효과성을 높여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리당위원회의 일

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 서술되어있는 김정숙동지의 수령결사옹위의 감동깊은 자료들을 준비해가지고 대중속에 들어가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이고있다.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몽골 사회민주녀성동맹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2일 몽골 사회민주녀성동맹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우리 나라와 세계녀성운동발전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결사옹위정신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방문을 마치고 국제심사위원회 위원장 마하일 포스케브-네스케르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소박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는 해설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의무에 자신의 한생을 바치시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몽골인민당대표단 회담 진행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몽골인민당대표단의 회담이 20일 인민당정사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몽골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 동지께서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 성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상대측에서 드. 멩흐바트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인민당대표단 성원들과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드. 멩흐바트총비서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의 이번 몽골방문은 60여년의 역사를 가진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유럽나라들과 몽골을 방문하였던 조선로동당대표단 귀국

도이쉴란드, 벨지크, 스위스, 이탈리아와 몽골을 방문하였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 동지께서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22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관과 헨슬라브 이와노브 주조 별가리

유엔총회 제69차회의에 참가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뉴욕 도착

유엔총회 제69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리수용의 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21일 뉴욕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유엔주재 우리나라 상임대표와 대표부성원들이 맞이하였다.

우리 나라 리정화선수 금메달 쟁취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력기경기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엄윤철, 김은국선수가 세계신기록을 수립하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데 이어 리정화선수가 또다시 우승함으로써 어머니조국에 승리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22일에 진행된 여자력기경기는 우리 선수들이 력기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중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여자력기 58kg급경기에 출전한 리정화선수는 추켜올리기에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주어 2위를 한 선수보다 8kg 더 많은 134kg을 성공시킴으로써 종합 236kg으로 우승자가 되었다.

시상식에서는 리정화선수에게 금메달이 수여되고 애국가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람프색공화국기가 높이 울렸다.

리정화선수는 우승의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믿음에 승리의 보고를 드릴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하였다.

이날 우리 여자기체조선수들은 단체경기에서, 김명현선수는 남자력기 69kg급경기에,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베라살포놀음을 강행한 주모자, 가담자들은 절대 무사치 못할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북남관계는 지금 피뢰보수파당의 계속되는 도발적모험으로 수습할수 없는 파국의 나락으로 더 깊이 끌려들어가고있다.

우리의 거두어지는 경고와 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피뢰파당은 지난 21일 악질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인강단체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베라살포놀음을 끝끝내 강행하였다.

이런 베라살포놀음은 북남관계개선과 대화를 위한 우리의 인내적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은 겨레와 내외여론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고 모독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남쪽에서 날로 우심해지는 인강단체기들의 베라살포놀음이 북남관계에 미치는 엄청난 후파에 대하여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남측당국에 엄중히 경고하고 아이들만큼 말도 해주었다.

피뢰파당이 진짜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고 대화를 바란다면 마땅히 우리의 경고와 충고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없이 날치는 너절한 추종들의 반공화국베라살포놀음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뢰파당은 《제체특성》이니, 《인간단체의 자율적행동》이니 뭐니 하면서 그들의 당동을 공공연히 비호두둔하였을뿐아니라 《인간단체의 행동을 막을 법적근거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변박했다. 《그 거들거들 확인해줌으로써 인강단체들이 더욱 기세를 부리며 베라살포놀음을 광란적으로 벌일수 있게 조장하고 부추겼다.

특히 당일에는 진보전대 동시민운동단체들과 현지주민들, 개성공인지구 기업관계자들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각계층이 열광하여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나서서 베라살포를 막을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지만 피뢰파당은 《물리적충돌》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경찰을 동원하고 베라살포놀음을 그들의 항거를 저지시키며 인간스레기들의 방동을 극력 비호해나갔다.

모든 사실은 이번 베라살포놀음의 장본인, 주범은 다름아닌 피뢰파당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피뢰파당의 비호두둔하에 벌어진 이번 베라살포놀음을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참수수 없는 도발로, 북남관계의 자율적행동》이니 하는 보자기로 씌워 계속 비호두둔해나선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것은 파국밖에 없다.

숭고한 민족문제와 세계비대립같은 남조선내부사정을 혼란시키려는 피뢰파당개성은 영원히 끝도 끝도 없게 될것이다.

대방을 반대하는 베라살포는 국제법에 정정행위로 공인되어 있다.

더우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인

제10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

제10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되였다.

전람회개막식이 22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식에는 로두철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리룡남대외경제상, 김성덕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현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회의 소장, 무역부부 일꾼들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박용식 조선경제전람회 사장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앞으로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세계 여러 나라, 지역들과 경제무역분야에서의 쌍무적 및 다무적협조를 계속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와 도이쉴란드, 로제야,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중국, 쿠바, 이탈리아, 중국 대륙 등 여러 나라와 지역의 회사들이 출품한 전시품들을 돌아보았다.

전람회는 25일까지 진행되다.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 도착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몽골국립종합대학대표단, 인민대학대표단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대학대표단, 대표들, 프랑스 파리제7종합대학 대표가 2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또한 로제야의 조선어전문가들이 왔다.

비행장에서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이에 앞서 도이쉴란드 베를린 자유종합대학대표, 중국 연변교육출판사대표단, 총련 조선대학교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월남, 라오스를 방문하였던 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귀국

월남, 라오스를 방문하였던 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이 22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부 일꾼들과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마중하였다.

몽골 사회민주녀성동맹대표단 도착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장 유희-에르메네 주조 몽골 립사리대사가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황해남도물길들 기여이 열여농자

애국충정으로 끓는 심장들

당의 대자연계 조지상을 받들고 분발해나선 함경북도...

대대가 맡은 물길굴공사장에 긴급한 정황이 조성되었다. 권양기치가 깨어지고 전동...

여러나 되는 밤길이지만 돌격대원들은 주저없이 나섰다. 험하지 않은 길이었다. 하지만...

원들이 하루에 걷는 거리는 보통 70~80리나 되었다. 맨몸으로도 걷기 힘든 길은...

결사의 의지로 끓는 심장들은 마침내 기적을 안아왔다. 철근가공전투를 짧은 기간에...

황해남도려단 재령군대대 청년돌격대원들

사회주의강성국 건설의 주축전우마다에서 자랑찬 위훈을 새겨가는 우리의 미...

20m인 천원바위를 처리하여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줄 것을 결의했다.

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를 조선로동당원으로 키워준 당의 그 사랑과 믿음...

속도와 질은 공사의 생명

속도와 질은 공사의 생명이다! 온천군대대에 가면 그 누구에게서나 이런 말을 듣게 된다.

남포시려단 온천군대대에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전투장은 부글부글 끓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진정으로 당에 충실하...

순간 모두의 얼굴에 긴장한 빛이 어린다. 「동무들, 우리가 이룩한 난관에 주저앉으면 그만...

의 투쟁은 전화의 영웅전사들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다른 곳에서는 물길굴확장공...

제히 울리는 착암기소리, 막강한 압력을 내뿜는 압축공기소리, 용을 쓰며 기운차게 돌아가는...

구멍마다에 폭약을 채우기 시작한다. 잠간사이에 발파준비가 끝나...

「응~ 쿵~ 쿵~」 발파소리가 메아리쳐간다. 물길굴사장의 1분 1초가...

순간도 늦출수 없다

자강도려단 물길굴전투장에서

다. 공사를 순간도 늦출수 없습니다. 대대장 김정혁동무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돌격대원들이...

고 구입없이 오기는 밀착물... 비록 총포성은 울리지 않았으나 전파의 격진음을 방불케...

다. 공사를 순간도 늦출수 없습니다. 대대장 김정혁동무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돌격대원들이...



물길굴건설에 애국의 땀을 바쳐가고 있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그 사랑 노래하듯 양떼 흐른다

만포시 교산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촌에서 양과 돼지를 비롯한...

이곳 농장에서 양을 많이 길러 그 덕을 크게 보고있는데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있다. 10여년전만 해도 농장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농장에서는 양을 전문적으로 기르는 청년작업반을 새로 조직...

지덕체를 겸비한 미더운 역군들로

라선시 라진지구 3중영예의 붉은기

라선시 라진지구 3중영예의 붉은기 라진소학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영예의 붉은기학교...

라선소학교에서

그 과정에 교장은 학위소유자가 되었고 많은 교원들이 10월 8일모범교수자, 새 교수방법...

라선시 라진지구 3중영예의 붉은기

학교의 교직원들은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혁명활동전구상을 비롯한 교양거점들을 보다 훌륭...

라선소학교에서

교원들은 음악과 체육을 비롯한 피아노소호활동을 힘있게 벌여 학생들의 문화소양을 부단히 높이고있다.



농장에서는 양을 많이 길러 농장살림을 꾸미고있다. 농장에서는 양털솜을 낚는 등 두말한 이불을 만들어 해마다 새 가정을 이루는 청년농부들에게 안겨주고있다.

교육환경개선에 큰 힘을 넣어

신의를 지킴

동무는 학교를 령도업적담당자 더 잘 꾸리려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을 개선해나갈 높은...

김금순초급중학교 교직원들

학교에서는 어머니수령님의 혁명지시판을 더 잘 모시고 정문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당조...

김금순초급중학교 교직원들

다. 그리고 정문도 다시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어머니수령님의 지시문을 통해 모듬 들어내고...

김금순초급중학교 교직원들

학교에서는 지난번 12년제의 무교육이 실시되는데 맞게 모든 교원들이 새롭게 정년퇴...

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